

2016. 01. 25. ~ 01. 31. 주간

70
VOL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마늘 가격 전망 및 생산 동향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순천시 "탐프루트 배"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유기농 인삼 확대재배로 틈새시장 공략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한국산 신선딸기 베트남 수출길 열려...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목사동면 갯잎 농사꾼 연소득 2억원 화제
병 재배 버섯 수확 후 배지 재활용하면 생산비 절감

정책 동향

농식품부, 2016년 농산물 안전관리계획 확정
농식품부,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 추진

해외 농업정보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6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0~1mm)보다 많겠음

❁ 농작물, 대설대비 농업시설물 관리정보 9

- ▶ 대설 한파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철저 당부

❁ 농산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10

- ▶ 마늘 가격 전망 및 생산 동향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주요 농산물 거래 동향 및 주간전망 13

- ▶ 도·소매 농산물 지역별 거래 동향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7

- ▶ 순천시, “탐프루트 배”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 ▶ 유기농 인삼 확대재배로 틈새시장 공략
- ▶ “구제역 없는 청정 고흥 지키기”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
- ▶ 화순군, 3년간 농가 경영기록 한눈에 본다.
- ▶ 안전한 맥류 월동 관리로 생산량 증대
- ▶ 해남군, 전남도 친환경농업 우수상 수상
- ▶ 신안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알찬농사 포문 열다!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7

- ▶ 한국산 신선딸기 베트남 수출길 열려...
- ▶ 담양군, 수출농업 원년 농업·농촌 주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30

- ▶ 혼합차 신제품의 식음료 유통전문가 호평
- ▶ 목사동면 깻잎 농사꾼 연소득 2억원 화제
- ▶ 병 재배 버섯 수확 후 배지 재활용하면 생산비 절감
- ▶ 설 앞두고 전남 농수특산물 대대적 판촉활동
- ▶ 사과나무 꽃눈 분화 확인한 뒤 가지치기하세요!
- ▶ 블루베리, 강 전정으로 수량성 높여야
- ▶ 대지감자를 대신할 '탐나' 감자품종 주목
- ▶ 단동 및 연동온실 스마트 기술 적용
- ▶ 한국형 농업 비점오염 평가 모델 개발
- ▶ 미강 발효사료로 닭을 건강하게!

❁ 정책 동향 45

- ▶ 농식품부, 2016년 농산물 안전관리계획 확정
- ▶ 농식품부,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 추진
- ▶ 농식품부, 2016년 과원 규모화 사업 정부지원 확대
- ▶ 설 선물 고르기 고민,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해결하세요.
-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 취·창업 확대,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농지 제도개선

- ▶ 브라질 Agroconsult 대두·옥수수 생산 하향 전망
- ▶ 잠비아 옥수수 작황 가뭄으로 7년래 최저
- ▶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공익과 영업, 두 토끼잡기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1. 25.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숏커버링세의 영향으로 강보합 마감함. 아울러 유가와 국제 주식시장 선방 또한 밀가격 강보합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짐.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풍작으로 인한 옥수수 공급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망했던 수출 데이터 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며 강보합 마감함.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주요 대두 생산지의 우호적인 기후가 전망되어 약보합 마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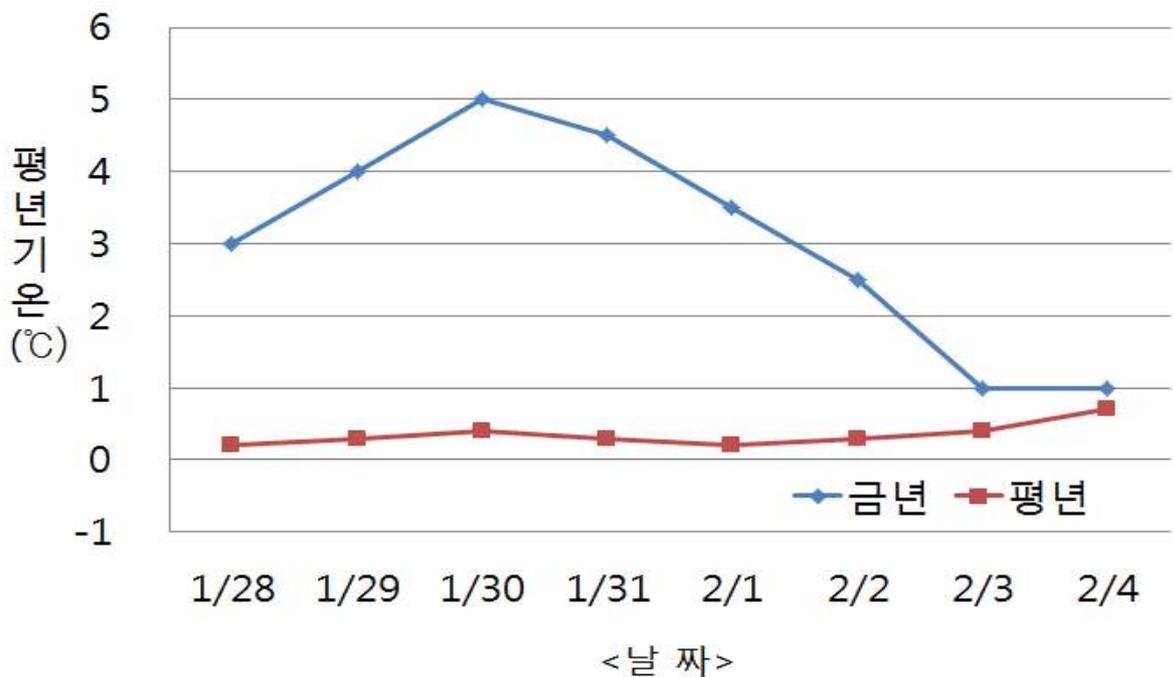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 글로벌 유기농 지도전문가 육성한다.
-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신청하세요.
- ▶ 순천시, 고소득 유망 과수 육성을 위한 「플럼코트」 식재 지원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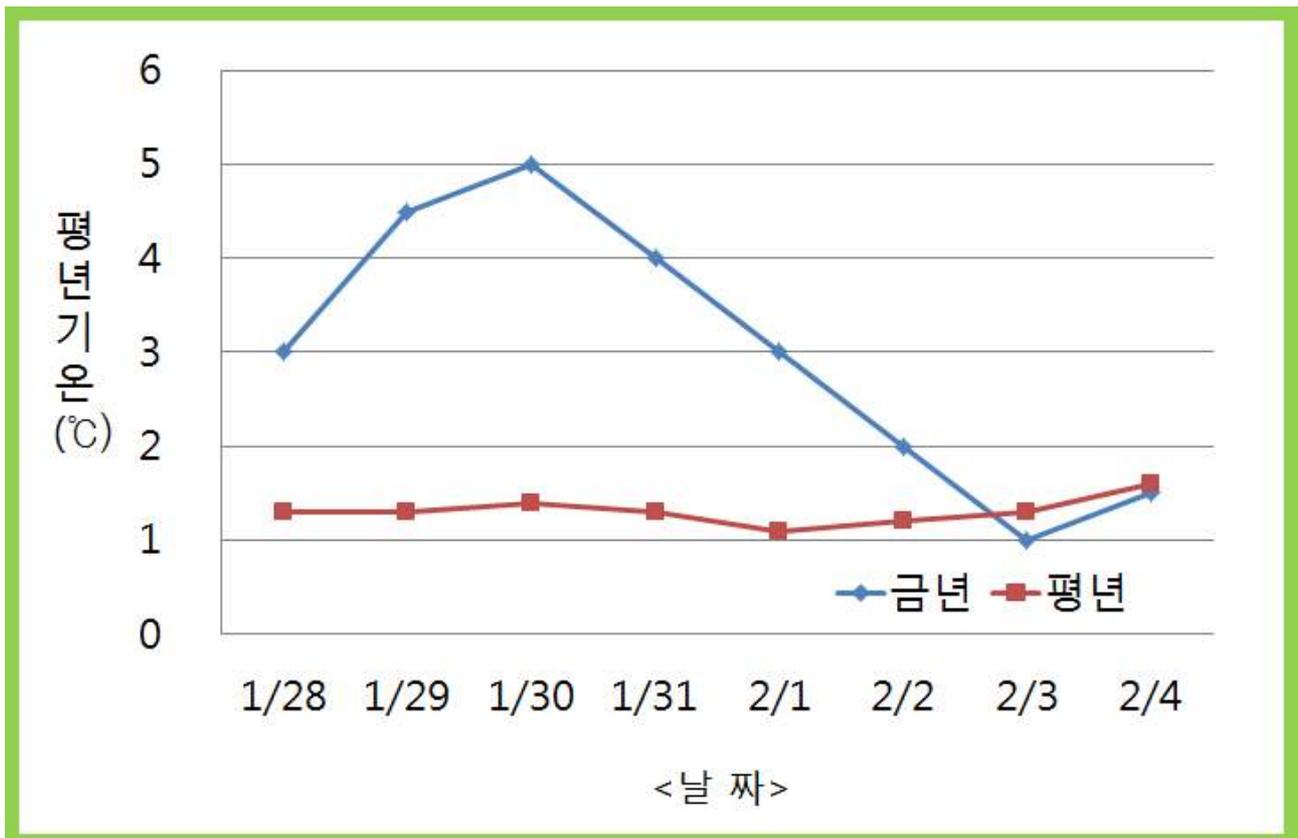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1	0.4	2.7	6.3	5.2	1.0	-0.1	-3.6	3.5	0.8
1. 28.(목)	3.0	0.2	2.8	7.0	5.0	2.0	-1.0	-3.7	2.7	0.7
1. 29.(금)	4.0	0.3	3.7	5.0	5.2	-0.2	3.0	-3.7	6.7	0.7
1. 30.(토)	5.0	0.4	4.6	7.0	5.2	1.8	3.0	-3.5	6.5	0.7
1. 31.(일)	4.5	0.3	4.2	8.0	5.1	2.9	1.0	-3.5	4.5	0.9
2. 01.(월)	3.5	0.2	3.3	7.0	4.9	2.1	0.0	-3.6	3.6	0.9
2. 02.(화)	2.5	0.3	2.2	6.0	5.1	0.9	-1.0	-3.7	2.7	0.8
2. 03.(수)	1.0	0.4	0.6	5.0	5.4	-0.4	-3.0	-3.7	0.7	0.7
2. 04.(목)	1.0	0.7	0.3	5.0	5.8	-0.8	-3.0	-3.5	0.5	0.6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0	1.3	1.7	5.8	5.9	-0.2	0.3	-2.0	2.3	0.6
1. 28.(목)	3.0	1.3	1.7	6.0	6.0	0.0	0.0	-2.0	2.0	0.7
1. 29.(금)	4.5	1.3	3.2	6.0	5.9	0.1	3.0	-2.0	5.0	0.6
1. 30.(토)	5.0	1.4	3.6	7.0	5.9	1.1	3.0	-1.9	4.9	0.6
1. 31.(일)	4.0	1.3	2.7	7.0	5.8	1.2	1.0	-1.9	2.9	0.6
2. 01.(월)	3.0	1.1	1.9	6.0	5.6	0.4	0.0	-2.0	2.0	0.7
2. 02.(화)	2.0	1.2	0.8	5.0	5.7	-0.7	-1.0	-2.2	1.2	0.6
2. 03.(수)	1.0	1.3	-0.3	4.0	6.1	-2.1	-2.0	-2.1	0.1	0.7
2. 04.(목)	1.5	1.6	-0.1	5.0	6.4	-1.4	-2.0	-2.0	0.0	0.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9	2.0	1.8	6.4	6.2	0.2	1.4	-1.3	2.7	-1.3
1. 28.(목)	4.0	1.9	2.1	6.0	6.1	-0.1	2.0	-1.4	3.4	-1.4
1. 29.(금)	5.0	2.0	3.0	6.0	6.1	-0.1	4.0	-1.3	5.3	-1.3
1. 30.(토)	5.5	2.1	3.4	7.0	6.1	0.9	4.0	-1.2	5.2	-1.2
1. 31.(일)	5.0	2.0	3.0	8.0	6.1	1.9	2.0	-1.3	3.3	-1.3
2. 01.(월)	4.0	1.9	2.1	7.0	6.0	1.0	1.0	-1.4	2.4	-1.4
2. 02.(화)	3.0	1.9	1.1	6.0	6.1	-0.1	0.0	-1.4	1.4	-1.4
2. 03.(수)	2.0	2.1	-0.1	5.0	6.4	-1.4	-1.0	-1.3	0.3	-1.3
2. 04.(목)	2.5	2.4	0.1	6.0	6.7	-0.7	-1.0	-1.0	0.0	-1.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대설대비 농업시설물 관리정보

■ 대설 한파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철저 당부

- 하우스작물 적정온도 유지관리,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안전점검 등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곳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관리요령을 긴급히 발표하고, 사전·사후관리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하우스 지붕에 눈이 잘 미끄러져 내리도록 밴드(끈)를 팽팽하게 당겨두며, 외부에 보온덮개나 차광망을 설치한 경우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으므로 걷어두거나 비닐을 씌워둔다.
- 고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는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보온관리(과채류 12℃, 엽채류 8℃ 이상) 한다.
- 눈이 많이 올 때는 시설물 지붕위의 눈을 수시로 쓸어내리고, 보온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위에 쌓이는 눈이 녹아 내리도록 한다.
- 과수 방조망은 양쪽 옆으로 걷어두고, 축사내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붕괴를 예방하며, 가축이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관리를 철저히 한다.
- 눈이 녹은 물로 인해 농작물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맥류 등 동계작물 포장과 시설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3. 농산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마늘 가격 전망 및 생산 동향

- 1~2월 마늘 도매가격 전년, 평년보다 높은 수준 지속될 전망
 - 1~2월 마늘 도매가격 2015년산 마늘 재고량 감소로 전년, 평년보다 높은 수준 지속될 전망
 - 난지형 마늘 1~2월 상품 kg당 도매가격(5대 도매시장)은 전년(3,436원), 평년(3,665원)보다 높으나, TRQ 방출 영향으로 전월 대비 보합세인 5,600~6,000원 전망
 - 1~2월 깎마늘 도매가격은 국내산 저장마늘 수요 증가, 가공 감모율 상승 등으로 전월 대비 강보합세인 상품 kg당 7,300~7,700원 전망
- 2016년산 재배면적 전년 대비 5% 증가 전망, 현재까지 생육은 양호
 - 2016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 증가 전망
 - 2016년산 난지형 마늘은 2015년산 가격 상승으로 대서종을 중심으로 증가하나, 한지형은 노동력 부족, 종구비 상승, 파종기 강우 영향으로 전년보다 3% 감소 전망
 - 농업관측센터 조사치를 적용한 2016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약 21,700ha로 전년보다 5%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6% 적을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1. 25.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1/25)	1주일전 (01/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41,400	42,267	↓ 12.6	↓ 14.4
	콩(백태)	35kg	149,000	149,000	148,400	140,000	182,800	↑ 6.4	↓ 18.5
	고구마(밤)	10kg	25,200	25,200	22,400	22,300	25,953	↑ 13.0	↓ 2.9
	감자(수미)	20kg	29,400	28,200	25,600	24,750	27,877	↑ 18.8	↑ 5.5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690	510	-	380	668	↑ 81.6	↑ 3.3
	양배추	10kg	6,700	4,900	3,675	5,000	7,493	↑ 34.0	↓ 10.6
	오이(다다기계통)	10kg	35,667	37,000	33,583	40,556	42,961	↓ 12.1	↓ 17.0
	애호박	8kg	36,800	32,000	25,650	31,650	32,727	↑ 16.3	↑ 12.4
	토마토	10kg	30,800	30,600	23,150	28,700	33,920	↑ 7.3	↓ 9.2
	당근	20kg	24,200	24,400	24,500	16,200	23,507	↑ 49.4	↑ 2.9
	건고추(화건)	60kg	780,000	784,000	792,000	820,000	873,333	↓ 4.9	↓ 10.7
	풋고추	10kg	57,200	50,800	52,250	49,200	63,387	↑ 16.3	↓ 9.8
	마늘(깐마늘)	20kg	151,000	150,000	143,000	96,800	110,867	↑ 56.0	↑ 36.2
	양파	20kg	33,200	33,200	33,200	10,400	17,240	↑ 219.2	↑ 92.6
	대파	1kg	2,670	1,970	1,995	1,250	1,513	↑ 113.6	↑ 76.5
	파프리카	5kg	59,200	55,200	23,550	29,650	35,770	↑ 99.7	↑ 65.5
	멜론	8kg	28,600	29,000	28,150	38,900	42,845	↓ 26.5	↓ 33.2
	방울토마토	5kg	23,000	19,600	14,950	17,950	20,390	↑ 28.1	↑ 12.8
과 목 류	수박	1개	21,600	21,400	19,800	20,000	15,787	↑ 8.0	↑ 36.8
	사과(후지)	10kg	36,200	36,200	35,400	37,800	54,844	↓ 4.2	↓ 34.0
	배(신고)	15kg	44,200	44,000	43,600	35,300	46,987	↑ 25.2	↓ 5.9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1/25)	1주일전 (01/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29,000	524,000	563,000	↑ 1.0	↓ 6.0
	느타리버섯	2kg	12,000	10,800	11,600	12,050	14,753	↓ 0.4	↓ 18.7
	새송이버섯	2kg	8,400	7,800	8,200	7,800	9,740	↑ 7.7	↓ 13.8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81	7,938	7,791	6,675	6,411	↑ 18.1	↑ 22.9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45	1,833	1,989	1,907	1,770	↓ 3.3	↑ 4.2
	닭고기	1kg	5,219	5,052	5,341	5,793	5,370	↓ 9.9	↓ 2.8
	계란(특란)	30개	5,536	5,534	5,562	5,863	5,778	↓ 5.6	↓ 4.2
	우유	1리터	2,548	2,548	2,550	2,548	2,388	- 0.0	↑ 6.7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1. 25.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797 천원	5,860 천원	4,571 천원	↓ 1.1	↑ 26.8
	거세	6,973 "	7,018 "	5,119 "	↓ 0.6	↑ 36.2
송아지 (6~7월)	암	2,632 "	2,656 "	1,809 "	↓ 0.9	↑ 45.5
	수	3,269 "	3,372 "	2,311 "	↓ 3.1	↑ 41.5
육우(600Kg)		3,686 "	3,670 "	3,468 "	↑ 0.4	↑ 6.3
젖소수송아지(7일령)		191 "	203 "	38 "	↓ 5.9	↑ 402.6
돼지(110kg)		343 "	373 "	351 "	↓ 8.0	↓ 2.3
육계(원/kg)		1,345 원	1,585 원	1,643 원	↓ 15.1	↓ 18.1
계란(원/특란10개)		989 "	993 "	1,301 "	↓ 0.4	↓ 24.0
오리(원/kg)		1,667 "	1,667 "	2,167 "	-	↓ 23.1

※ '14년 경역비(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주요 농산물 거래 동향 및 주간전망

□ 소매, 채소류/배추(월동), 2016-01-22, 부산

- 전남 해남·무안 등지에서 주로 출하됨
- 산지 폭설과 한파 등 기상악화로 출하작업이 부진하여 오름세에 거래됨
- 전통시장 소매가격은 1포기에 상품 3,000원, 중품 2,5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에도 추위로 인한 산지출하 작업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명절 준비에 따른 소비 증가로 강보합세 전망

□ 도매, 채소류/배추(월동), 2016-01-22, 부산

- 전남 해남지역에서 주로 출하됨
- 폭설과 한파로 주초부터 시장 내 반입량이 계속 감소하여 소비량 대비 반입량 부족으로 강세
- 도매가격은 1kg당 상품 700원, 중품 6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에는 기상회복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약보합세 전망

□ 소매, 채소류/호박(애호박), 2016-01-22, 부산

- 경남 김해·양산·진주·창녕 등지에서 주로 출하됨
- 전국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산지 생산량은 감소하나 추운 날씨로 인한 국거리용 소비는 증가하면서 반입물량 부족으로 강보합세
- 전통시장 소매가격은 애호박 1개에 상품 1,800원, 중품 1,6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에도 추위로 인한 국거리용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출하량이 따라주지 못해 강보합세 전망

□ 소매, 채소류/호박(애호박), 2016-01-22, 대구

- 경남 의령·함안지역에서 출하됨
- 날씨의 영향으로 공급물량이 부족한 편이나, 국거리용 및 반찬용 부재료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오름세에 거래됨
- 소매가격은 1개 기준 100원 오른 상품 1,800원, 중품은 1,4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 생산물량 감소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강보합세 전망

□ 도매, 채소류/토마토, 2016-01-22, 서울

- 강원 춘천·충남 논산·전남 순천·광양·고흥 등지에서 반입됨
- 폭설과 강추위로 주산지 생육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오늘 시장 내 출하물량 감소와 고품질물량 반입으로 오름세에 거래됨
- 도매가격은 10kg 기준 2,000원 오른 26,000~30,000원에 거래됨
- 이번 주말기간까지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보합세 전망

□ 도매, 채소류/무(월동), 2016-01-22, 부산

- 제주도 지역에서 주로 출하됨
-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산지 출하작업 중단과 출하량 감소로 시장 내 물량 부족으로 강세
- 도매가격은 20kg당 상품 10,000원, 중품 8,000원선에 거래됨
- 산지 출하대기 물량이 풍부하여 기온이 회복되면 약세 전망

□ 도매, 채소류/ 풋고추, 2016-01-22, 서울

- 경남 진주·밀양·창녕·청도·고성 지역에서 주 반입됨
- 주간 날씨가 추워지면서 요식업소 소비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생육상황이 원활하지 못하여 산지출하물량 감소에 따라 오름세에 거래됨
- 도매가격은 10kg 기준 4,000원 오른 상품 54,000원 ,중품 44,000원에 거래됨
- 향후 가격은 반입량이 회복되면 보합세 전망

□ 도매, 채소류/ 파(쪽파), 2016-01-22, 서울

- 충남 예산·당진·선산·전남 보성·경북 고령 등지에서 반입됨
- 지난 주말부터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면서 생육상황이 원활하지 못하고 산지출하작업부진에 따라 시장 내 물량 감소로 오름세에 거래됨
- 소매가격은 1kg 기준 500원 오른 상품 4,500원, 중품 4,000원에 거래됨
- 출하량이 많지 않아 당분간 강보합세 전망

□ 소매, 채소류/ 미나리, 2016-01-22, 광주

- 전북 완주·남원·장수 등지에서 주 출하됨.
- 주산지의 잦은 흐린 날씨로 생육여건이 좋지 않아 출하량이 감소하였고, 겨울철 국거리의 부재료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름세에 거래됨.
- 전통시장 소매가격은 1kg에 500원 오른 상품 5,500원, 중품 5,000원 선에 거래됨.
- 출하지의 기상여건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주중 흐린 날씨가 예보되고 있어 공급 불안정으로 강보합세 전망

□ 도매, 채소류/깻잎, 2016-01-22, 대전

- 충남 금산·충북 옥천·충남 논산 등지에서 반입됨
- 기온 하강으로 주산지 생산량이 적고 반입량이 고르지 못해 오름세
- 도매가격은 2kg기준 2,000원 오른 상품 22,000원, 중품 20,000원에 거래됨
- 당분간은 생산량이 적고 반입량도 불규칙하여 오름세 전망됨

□ 도매, 채소류/깻잎, 2016-01-22, 대구

- 경남 밀양·경북 경산·영천 지역에서 출하됨
- 동절기 한파의 영향으로 출하작업이 중단되면서 공급물량 감소로 오름세에 거래됨
- 도매가격은 2kg 기준 1,000원 오른 상품 22,000원, 중품은 17,000원 선에 거래됨
- 향후 일기불순에 따른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어 강보합세 전망

□ 도매, 채소류/방울토마토(국산), 2016-01-22, 대전

- 충남 청양·대전에서 소량 반입됨
- 주산지 기온하강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감소하자 오름세
- 도매가격은 5kg 기준 5,000원 오른 상품 27,000원, 중품 22,000원에 거래됨
- 일조량 부족과 기온이 떨어지면서 당분간은 오름세 전망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순천시, “탑프루트 배”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 순천시는 올해 낙안배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한단계 높이기 위해 탑프루트 배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탑프루트 배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최고품질의 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투입하고, 소비자 구매성향에 맞는 유통전략으로 다양한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본 사업은 매월 현장컨설팅 및 벤치마킹을 통해 최고품질 과실 생산 핵심기술 지원하고, GAP인증시설을 확충하는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50백만원이 투입된다.
- 순천시는 본 사업을 통하여 FTA 대응 최고품질 배 기술확보로 낙안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순천시

■ 유기농 인삼 확대재배로 틈새시장 공략

- 기술센터가 친환경인삼 재배단지를 20ha까지 확대 조성해 프리미엄급 유기농인삼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친환경인삼에 대한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경사식 해가림 재배방법은 병 발생에 의한 수량 감소로 인삼 재배농가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그렇지만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해 친환경인삼을 재배할 경우, 병 발생이 적어 화학농약 대신 미생물제재·석회보르도액·친환경자재 등으로 방제가 가능하다.
- 하우스에서 인삼을 재배하면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광환경 개선과 적정관수로 수확량 증가는 물론, 태풍·폭설 등 재해 피해도 줄일 수 있다.
- 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인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 재배기술을 축적하고 사업성을 검증한 결과 유기농인삼을 곡성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 재배농가 역량강화 및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곡성 친환경 인삼농업인 연구회를 결성해 지속적인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의 MOU체결을 통해 친환경인삼 재배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 2015년에는 농촌진흥청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사업’을 추진해 2016년부터 연간 2톤의 친환경묘삼 생산체제를 갖추게 됐으며, 올해 관련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 곡성군 유기농인삼은 iCOOP(아이쿱), 아모레퍼시픽 등에 높은 가격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이다.
- 기술센터 관계자는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약용작물로 우리군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인삼 생산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며 “친환경인삼 시장 선점을 위해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친환경인삼 재배기술을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 출처 : 곡성군

■ “구제역 없는 청정 고흥 지키기”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

-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100% 막을 수 있다 -

-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최근 전북 김제, 고창에서 잇따라 발생한 구제역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고강도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청정 고흥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군은 구제역 및 AI 종합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휴일과 설 연휴기간에도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 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에 발생한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하고 있는 O형·+A형·+Asia1형 세 가지 혼합 백신의 한 가지 형인 O형으로 철저한 예방접종하면 100% 막을 수 있다.
- 그동안 군은 구제역 차단 예방으로 공동 방제단 10개팀 9명을 동원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지난 15일에는 군내 양돈농장 32농가 27,364두에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을 완료하였다.
- 또한, 농가별 백신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물 3종 2000부 제작 배부하는 등 구제역 초동 방역태세에 적극 나섰다.
- 그리고 고흥군은 축산관련 차량(가축분뇨·사료운반·가축운송 등)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반드시 소독필증을 교부 받아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동강면 한천마을에 거점 소독 초소를 설치하여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 군내 우제류(소·돼지 등) 사육농장 2,500개소에 “구제역 방역 현장 관리카드”를 제작 비치하고, 군·읍면 직원 230명을 동원하여 농장별 예방접종 및 소독실시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 또한, 예방 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소 50마리, 돼지 1천 마리 미만 사육농가에 백신을 일괄 구입해 무상 지원은 물론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선 농가가 지역 축협을 통해 자체 구입할 경우 50%를 보조 지원하는 등 상시 예방지원에도 행정을 펼쳐가고 있다.
- 군 관계자는 “구제역 없는 고흥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자율 차단방역과 축산관련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고흥군

■ 화순군, 3년간 농가 경영기록 한눈에 본다.

- 농가경영 기록장 500부 제작배부, 농가 경영진단 분석도 가능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강소농가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가 경영기록장 500부를 제작하여 강소농가 및 희망 농업인에게 배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 금년에 제작된 농가경영기록장은 2018년까지 3년 동안 기록이 가능하며 농장현황, 영농일지, 수확·판매일지, 경영기록, 월별집계표 형태로 구성되어 연도별 기록비교 및 집계가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 또한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력, 24절기, 일간 표기 및 농업 관련 기관연락처 등을 추가 구성하여 영농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농가 경영기록장을 꾸준히 작성해온 노상현씨는 “복숭아 개화 및 병해충 발생상황, 농산물 수확시기 등 경영기록장에 기록된 결과를 비교하면 작물 생육상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 농장에 경영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어 농사짓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농가 경영기록장이 배부된 농가는 작목담당 지도사가 경영기록장 작성·지도 및 기록 사항을 토대로 농가 경영에 대한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경영기록장을 받아보기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작목담당자 및 역량개발담당(061-379-5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화순군

■ 안전한 맥류 월동 관리로 생산량 증대

-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월동기 맥류 동해 예방 기술과 생육재생기 관리 요령을 제시하고, 고품질 맥류 생산을 위해 안전한 맥류 관리를 당부하였다.
- 맥류 수량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겨울 동안에 추위를 막아주고 토양수분을 알맞게 해주는 등 보리의 건전생육을 유도해야 한다.
- 상습적으로 동해가 심한 포장, 습해를 받은 포장, 늦게 파종한 맥류는 겨울을 나는 동안에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해지게 되므로 마른 볏짚 300kg/10a 정도를 5~10cm 길이로 잘라서 덮어주면 보온·보습·잡초 발생 억제 등의 효과가 있으며, 귀리는 추위에 다소 약하므로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우리지역의 보리 생육재생기는 전년은 2월 6일이었으며, 평년은 2월 9일이다. 생육재생기는 겨울 동안 성장을 멈췄던 맥류가 다시 자라는 시기인데, 2월 상순경 지상 1cm 부위의 잎을 자른 후 잎이 1cm 이상 다시 자랐거나 뿌리가 2mm 정도 자란 상태에서 하루 평균 기온이 0℃ 이상으로 3~4일 지속될 때이며 이상 난동에 의한 일시적 재생은 재생기로 보지 않고, 계속 생육 시에만 재생기로 본다.

- 생육재생기가 되면 웃거름을 생육재생기 직후 10일 이내에 10a당 4~5kg을 1차에 주고 20일 후 2차로 나눠주되 토양과 품종, 생육 특성에 따라 알맞게 조절하며, 맥주보리는 2월 중·하순에 10a당 요소 4~7kg을 주되 맥주보리는 웃거름을 2월 중·하순에 1회만 주어 단백질 함량이 적은 양질의 맥주보리 생산하여야 한다. 웃거름을 주면 뿌리 생산 촉진 시기부터 생육 후기까지 비료효과가 지속되어 이삭당 알 수가 많아지고 이삭이 잘 여문다.
- 잎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으로 생육이 부진한 곳은 물빠기를 한 후에 요소 2%액(물20ℓ에 요소400g)을 10a당 100ℓ씩 2~3회 살포하거나, 속효성인 유안을 10a당 13~17kg 웃거름 대체 사용하면 생육회복에 도움이 된다.
- 습해에 취약한 맥류는 봄철 강우를 대비하여 보머리 트기와 배수구 정비로 습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뿌리 활력을 좋게 하고 잡초 방제를 위해서 화분과 2~3엽기, 광엽 잡초는 3~5엽기에 경엽 처리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 이동근 소장은 “보리·귀리 등 맥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맥류 월동기와 생육재생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고품질 강진 맥류 생산을 위해서 현장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강진군

장흥 표고버섯 한우 설 명절 특수 특특

- 설 명절을 앞두고 표고버섯과 한우 등 장흥군 특산물이 명절 특수를 누리고 있다.
- 장흥군(군수 김성)은 최근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표고버섯과 한우 선물세트를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연달아 납품하며 매출을 높이고 있다고 20일 전했다.
- 장흥군에 소재한 표고버섯의 유통·가공 전문업체 청계영농조합(대표 선옥규)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유기농 백화고 세트, 흑화고 세트 등 주요 제품을 납품하며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특히,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흥 표고버섯 선물 세트의 비중을 20% 가량 늘릴 방침을 세우고 있어 매출 향상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최근 롯데호텔서울은 설을 앞두고 다음달 6일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에 나섰다.
- 롯데호텔서울 측은 장흥에서 자란 1++등급의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한우를 선별해 '프리미엄 청보리 한우세트(100만원~110만원)'를 소비자에 선보였다.
-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는 상품기획자(MD)가 품질을 보장하는 설 명작 선물세트 기획전을 열고 장흥한우구이 세트(1.3kg)를 28% 할인한 10만 8천원에 내놓았다.

- 11번가는 올해 설 선물 기획전에는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신선식품의 비중을 27% 높였다고 밝혔다.
- 한편 장흥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정남진 장흥몰(www.okjmall.com)에서는 이달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맞이 특별 이벤트를 열고 표고버섯·무산김·함초소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5~3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 군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장흥 특산품의 주가가 높아지고 있다”며, “직거래와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소비자의 선호에 따른 건강한 농수산물 유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장흥군

■ 해남군, 전남도 친환경농업 우수상 수상

- 마산 뜬섬지구 조성 등 선진 친환경 시책 높은 평가 -

-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2015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평가에서 기초 자치단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해남군은 전남 최대의 농경지를 보유한 농업군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다양한 역점시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소비처 발굴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 평가를 통해 해남군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실적, 정책 추진 열의도, 흙 살리기 추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실적, 친환경 쌀 택배비 및 생산 장려금 지원, 판매촉진 등 각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특히 마산 제 3공구 뜬섬 108ha 전 지역에 친환경 벼를 재배하고, 생태 환경을 조성한 시책 등이 높이 인정받아 우수지자체 선정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을 받게 됐다.
- 지난해 해남군은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경지면적의 10%인 3,670ha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취득했으며 녹비작물 파종, 유기질비료, 객토 지원 등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한편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해남군

■ 신안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알찬농사 포문 열다!

- 1월 19일부터 농업인 3천 5백명 대상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실시 -

- 천도천색 희망을 품은 서해바다를 수놓은 섬들의 고향 신안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설계와 특화품목 기술교육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 극복을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추진된다.
- 신안군은 친환경 유기농업을 최우선 과제로 읍면 특화품목 교육을 추진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1개월간 군·읍면 집합교육과 낙도순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육을 희망하는 13개 읍면 농업인 3,500명을 대상으로 읍면 집합교육과 교육의 혜택이 적은 낙도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이 추진된다.
- 201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작목별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 및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으로 국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핵심으로 추진된다.
- 특히, 군 집합교육은 FTA 대응 전략 및 신안농업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로 추진되며, 2015년 농정성과 및 시책과 2016년 농촌진흥사업 및 농정방침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며, 작목별 영농기술 교육은 작년 기상분석과 품목별 농업사례 중심으로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공감하면서 영농 애로기술과 새기술 보급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 또한,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월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교관요원 교육 및 강의기법 교육을 통해 작목별 핵심 영농기술과 신안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모으기도 하였다.
-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작목 개발과 애로기술 해결 중심으로 추진되므로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농촌의 당면한 문제를 서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신안군

7.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한국산 신선딸기 베트남 수출길 열려...

- 「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검역 요건」 '16. 1. 14. 일자로 최종 타결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베트남 식물검역 당국간 「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검역 요건」이 '16. 1. 14. 일자로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베트남 측에서 국산 딸기에 대한 수입허가서*를 발급하는 오는 2월 1일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베트남의 수입허가서와 한국의 수출검역증명서가 발행되어야 수출 가능

○ 농식품부는 '08년 베트남 측에 국산 딸기의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그간 검역 당국간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금번 두 나라의 식물검역 당국이 수출검역 요건에 합의하면서 모든 검역절차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 금번에 타결된 식물검역 요건에 따라 앞으로 국산 신선딸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 식물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딸기 수출단지, 재배농가 및 선별장을 등록하여야 하고, 재배기간 중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재배지 검역을 받아야 하며,

○ 식물검역기관의 최종 수출검역 결과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딸기만 수출할 수 있다.

○ 현재, 국산 신선딸기는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2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그 물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 ('12) 2,152톤 → ('13) 2,815톤 → ('14) 3,063톤 → ('15) 3,313톤

○ 금번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계기로 미국 및 이집트산 딸기가 장악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농식품부는 한창 수확 시즌에 있는 국산 신선딸기의 대베트남 수출을 신속히 개시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1일부터 수출단지, 수출농가 및 선별장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 최종적인 국내 검역행정 절차인 「한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 요령(검역본부 고시)」을 1월 19일자로 제정 시행하였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 정부3.0 핵심과제인 수출확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 발굴 등을 통해 식물검역 협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양군, 수출농업 원년 농업·농촌 주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FTA 대응 금년 168종 사업 347억여 만원 예산 지원 계획 발표 -

- 담양군이 2016년을 수출농업 원년으로 삼아 해외 시장 공략과 창조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 담양군은 지난 13일 담양문화회관에서 군 자치농정위원, 읍면 자치농정위원, 농·축협장, 농업인 단체대표 및 농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농업·농촌 주요 지원사업 시행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금년 추진되는 농업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FTA 대응 수출농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군은 농산물 시장개방 및 농촌의 고령화 등 농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 친환경농산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총 347억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자치농정정착 및 안정적 농업경영사업 18종 ▲친환경농업육성지원(원예) 21종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26종 ▲농산물 유통지원 및 홍보 20종 ▲경쟁력 있는 축산육성지원 사업 50종 ▲지도기능 활성화 및 농업경영정보 지원 29종 등 총 168종의 사업이 추진된다.
- 군은 특정인에게 농림사업이 중복 편중 지원되는 것을 지양할 방침이며 의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군 관계자는 “올해 군정 최우선 과제를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해 ‘담양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담양군

8.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혼합차 신제품의 식음료 유통전문가 호평

-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혼합차 제품 판매 가능성 확인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미래의 고객인 20~30대 젊은층이 좋아하는 차(茶)제품을 개발하고자 다각도로 녹차와 홍차에 여러 가지 혼합재료를 이용하는 방법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 중 하나가 기존 녹차와 홍차 제품을 가지고 다양한 과일·꽃·허브 등을 혼합하여 색·향·맛을 더욱 좋게 할 수 있는 혼합차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 따라서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지난해에 보성군 용역과제로 연구하여 보성지역 찻잎이용 녹차와 홍차, 그리고 돼지감자·우엉·어성초 등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혼합차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 국내 용과 수출용으로 구분, 혼합 녹차 10종, 혼합 홍차 10종, 액상 녹차 3종 등을 개발한 다음 1차 서울 일반 소비자 대상 500명과 2차 2015국제농업박람회에서도 일반 소비자 대상 700명에 대해 기호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 이어서 외국인에게도 국내차의 국외 수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남대를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 대상 105명에게 색·향·맛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또한 지난 12월 16일 보성 봇재 그린다향에서 서울지역 식음료 및 판매유통 전문가 30여 명을 초청하여 개발된 신제품 평가를 실시하였다.

- 가장 선호하는 녹차는 단맛이 있는 혼합 녹차이고, 홍차는 과일이 혼합된 오렌지 홍차로 나타났다. 외국인 학생들이 선호하는 녹차는 구수하면서 시원한 녹차와 단맛이 나는 장미홍차를 좋아했다. 또한 식음료 판매·유통 전문가들은 액상 녹차 3종(매실·오미자·블루베리)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나타냈다.
- 차산업연구소 최정 연구사는 앞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기호성과 기능성별로 적정 혼합방법 및 소재를 개발하여 녹차·홍차의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쉽게 마시는 차를 개발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목사동면 깻잎 농사꾼 연소득 2억원 화제

- 농촌에서 깻잎 농사로 연 2억원의 소득 -

- 농촌에서 깻잎 농사로 연 2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이봉섭 씨는 하우스 12동 8,000m²에서 깻잎을 재배해 수익을 올리고 있어 주위에 부러움을 받고 있다.
- 특히 이씨가 재배하는 깻잎은 상추와 함께 쌈 채소로 안전성과 웰빙 먹거리에선 빠지지 않을 만큼 소비성도 높은 농작물이다.
- 이 씨의 농장은 잇들개 농사에서 12동 중 8동이 무농약 인증과 나머지 4동도 친환경 인준에 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안전성이 입증됐다.
- 이곳 농장에선 친환경재배 농법으로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보급하는 자연 순환 생명농업(자연농업)을 통해 땅심도 살리고 안전 먹거리 생산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

- 특히 자연농업은 토착미생물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한방영양제로 병해를 예방하고, 식물 성장호르몬과 엽록소 활용제재인 천혜녹즙으로 잎의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는 농사법이다.
- 환경오염과 농약사용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이 이슈가 되는 오늘날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관리다.
- 농산물의 생산성은 땅에 양분을 공급하고 공기유통을 촉진하는 토양 미생물의 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토양미생물은 토양 중의 유기물 함량과 정비례한다.
- 농산물의 생산성이 낮아진 원인은 그동안 퇴비를 주지 않고 비료 위주의 농사로 유기물이 부족, 토양미생물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 자연농업의 핵심은 토착미생물을 채취하고 쌀겨에 증식해 농토에 뿌려줌으로써 토양 중 미생물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 이곳 목사동은 깻잎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어 8월 상순에 파종해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확하는 재배형태로 농사를 이어가고 있다.
- 이씨는 시설하우스 12동에서 연간 60여 톤의 깻잎을 생산해(생산액 4억여 원) 2억여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 또한, 이곳에서 생산된 깻잎은 30g 이상 기준 100봉지씩 상자에 넣어 '생협 구례자연드림'과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 농사를 짓는 이씨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확작업에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잎들께는 인건비가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현재 외국인 노동자 3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갈수록 농촌인력이 부족해 앞으로 인력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라고 말한다.

-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잇들깨 수확작업에 노령인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고령화된 농촌인력을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기술센터는 잇들깨·토란·멜론·딸기 등 11개 품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출처 : 곡성군기술센터

■ 병 재배 버섯 수확 후 배지 재활용하면 생산비 절감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느타리와 큰느타리(새송이)를 병에 재배할 때 버섯을 수확한 뒤 버리는 배지의 15%)를 새로운 배지에 섞어서 재활용하면 버섯 수량 감소 없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버섯을 병 재배할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에는 유효 성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농촌진흥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 병 재배용 배지를 만들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의 15%를 첨가해 재배하는 실험을 했다.
- 새로운 배지를 절약하기 위해 톱밥·콘코브·비트펄프·미강·밀기울·면실박·케이폭박 등 새 배지 조성에 혼합하는 재료의 85%와 한번 수확한 배지 15%를 섞는다.
- 이때 수확 후 배지 15%는 재배 병 수를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병에서 꺼냈을 때 나오는 양에 해당한다.
- 수확 후 배지 재활용 병 재배 시험 결과, 버섯 수량은 느타리 시험구 243g과 대조구 238g, 큰느타리 시험구 218g과 대조구 212g으로 통계적 유의 차는 없었다.

- 비용은 1만 병당 느타리 17.8만원(연간 44.6백만원), 큰느타리 21.3만원(연간 53.3백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대부분의 버섯 병 재배 농가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배지 제조 작업을 한다.
- 월요일에 병을 담은 병 재배용 상자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을 담은 상자의 색깔을 다르게 하고, 월요일에는 100% 새로운 배지를 병에 넣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확 후 배지를 재배 병 수 기준으로 20%씩 첨가해 1회씩 재활용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정종천 농업연구관은 “수확 후 배지를 재활용해 사용하면 배지 재료 구입비를 15% 정도 낮출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느타리 병 재배 수확후 배지 재활용 느타리 재배 시험>



느타리 수확 후 배지 20% 첨가구



무첨가구

* 출처 : 농촌진흥청

■ 설 앞두고 전남 농수특산물 대대적 판촉활동

- 서울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 82회, 쇼핑몰·TV홈쇼핑 등 집중 마케팅 -
-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성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2016 설맞이 농수특산물 판촉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는 서울·인천·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관공서 광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82회 운영된다.
- 온라인 판촉은 도와 시군 쇼핑몰 집중 마케팅 24회, TV홈쇼핑 5회 등 다양한 농축특산물 판촉활동이 펼쳐진다. 판촉활동에는 790여 업체가 참여하며, 매출 목표는 100억원이다.
- 특히 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서는 전남우정청, G마켓 등과 연계한 오픈마켓 판매에도 나서고, 제수용품, 과일·한우 세트 등 300여 품목을 7~40% 할인 판매하는 특별 이벤트도 추진한다.
- 전라남도는 또 시군, 농협과 합동으로 2월 5~10일 서해안 고속도로 요금소, 각 시군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전남산 고품질 브랜드쌀을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과 민관 합동 단속반(22개 반 198명)을 구성해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소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전라남도는 설맞이 농수특산물 집중 관측활동을 위해 '전남 우수 농수특산물 브랜드' 책자를 지난해 12월 말 제작해 전국 정부기관·재외공관·기업체·재경향우회·유통업체 등 3천 200곳에 배부했다. 도지사 서한문도 2천부를 발송해 전남 우수 농수특산물로 설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오염되지 않은 땅,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온화한 기후 등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된 전남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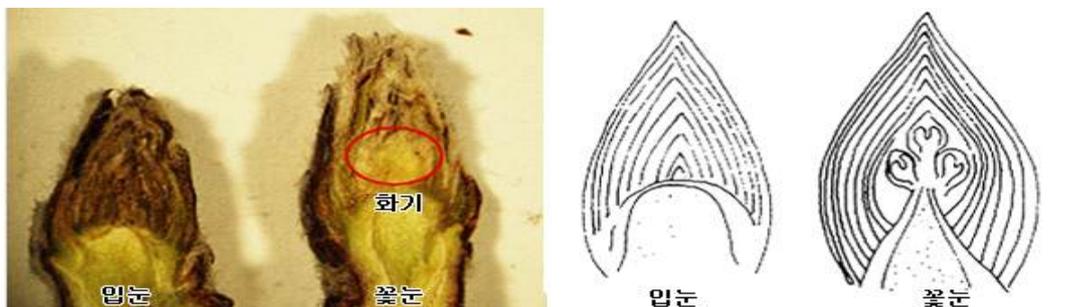
■ 사과나무 꽃눈 분화 확인한 뒤 가지치기하세요!

- 올해 꽃눈 분화율,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 간 편차 심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해 사과 주산지별로 꽃눈 분화율의 지역 편차가 크기 때문에 꽃눈분화 정도를 조사한 뒤 가지치기할 것을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은 7일부터 12일까지 사과 주산지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후지' 품종은 66%, '홍로' 품종은 71%로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꽃눈과 잎눈 구별 모습>



- 사과꽃의 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열매 맺는 비율이 낮아지거나 좋은 꽃눈을 확보하기 어렵다.
- 또,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꽃눈이 많아 열매를 숙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꽃눈 분화율에 따라 가지치기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 사과꽃의 꽃눈 분화율이 51~69%이면 평년처럼 가지치기를 해도 되지만, 70% 이상이면 겨울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를 많이 잘라내야 한다. 50% 이하인 경우에는 열매 맺는 가지 수를 많이 남겨야 결실을 위한 꽃눈 확보가 가능하다.
- 꽃눈 분화율을 조사할 때는 나무 세력이 중간 정도인 나무를 골라 눈높이 정도의 열매가지(결과모지)를 여러 방향에서 50~100개 정도의 눈을 채취한다.
- 채취한 눈은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세로로 2등분해 돋보기나 확대경으로 꽃눈분화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 사과나무의 꽃눈 분화율은 지난해 나무의 관리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 열매 달리는 양이 알맞고 잘 자란 나무는 꽃눈 분화율이 높지만, 갈색무늬병 발생 등으로 잎이 일찍 떨어진 과원이나 열매가 많이 열렸던 과원, 생육이 지나치게 왕성했던 과원 등은 꽃눈 분화율이 낮아 수량 확보와 품질이 뛰어난 열매 생산이 어렵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박무용 농업연구사는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이후 열매를 숙는데 드는 노력을 덜기 위해 농가에서는 가지치기 전에 꽃눈 분화율을 조사해 가지 치는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블루베리, 강 전정으로 수량성 높여야

- 도 농기원, 수체관리 연구결과 발표 30 → 50% 확대 당부 -

- 충남농업기술원은 블루베리 세력 저하에 의한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개선할 수 있는 재배기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그동안 블루베리는 심은 후 토양산도가 맞지 않거나 지면에서부터 새로운 줄기가 발생되지 않으면 나무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해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의 고민이 많았던 작물이다.
- 도 농업기술원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년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전정 강도를 기존 30%에서 50%로 높일 경우 수세 안정화로 수량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 다만, 전정을 할 때에는 오래된 줄기, 수관부 내부와 겹치는 줄기, 지상부의 신초발생이 없는 줄기, 병해 및 동해 등 장애를 입은 줄기를 지면의 뿌리 근처에서 완전히 숙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줄기의 구성 비율을 2년생 이하 10%, 3~4년생 30%, 5년생 이상의 줄기를 60% 정도가 되도록 관리하면 기존재배에 비하여 30% 이상 수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이와 함께 꽃봉오리(꽃눈)를 화방당 2개 정도만 남기고 제거하면 열매크기가 2.5g 이상의 대과 생산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 농업기술원 과수팀장 서정석 농업연구사는 “블루베리 재배농가에서 주기적인 토양산도 조정과 수체관리를 철저히 하면 품질 및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라며 “앞으로 도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향암, 향산화 성분을 다량 보유한 베리류는 최근 귀농인은 물론 기존 농업인들로부터 인기가 높는데, 특히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해 도내에서만 254ha에서 재배되고 있다.

* 출처 : 충남농업기술원

■ 대지감자를 대신할 ‘탐나’ 감자품종 주목

- 현장 평가결과 수량 多 , 더덩이병 强 , 상품성, 농업인 만족도 高 -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에서 개발한 신품종 감자 ‘탐나’ 농가실증 현장평가회결과 농업인들에게 합격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 탐나감자는 2006년 고품물 함량이 높은 AJ09와 더덩이병 저항성이 강한 제서감자를 교배하여 선발 육성을 시작한 이후 2014년 7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고 특허청에 품종 특허출원을 완료한 품종이다.
- 제주감자는 재배면적 2005년 6,000여ha까지 늘었으나 주 품종인 ‘대지’ 품종을 오랫동안 이어졌기로 인한 더덩이병 확산과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 면적이 늘어나면서 2014년에 1,800여ha 급격히 감소했다.
- 이번 현장 평가한 신품종 ‘탐나’는 중만생종으로 종자 수확 후 잠자는 기간(휴면기간)이 50~60일로 제주에서 1년에 2번 재배가 가능하다.
- 식물체 형태는 반직립형이고 줄기 길이는 ‘대지’ 보다 크고 생육이 양호하며 덩이뿌리 모양은 둥근형으로 표피가 매끄럽고 눈의 깊이가 아주 얇은 것이 특징이다.

- 특히, 더덩이병은 대비품종 '대지'에 비해 저항성이 높으면서 식미가 좋으며 가공 특성이 양호하여 식·가공용으로 가능한 품종이다.
- 실제로 농가실증 재배결과 줄기 길이는 탐나 품종이 84.1cm로 대지감자 59.6cm보다 24.5cm가 길었고, 1그루당 덩이뿌리 수는 탐나가 6.9개로 대지 6.3개에 비해 0.6개 많아 1그루당 수량은 598g으로 대지감자 548g 보다 50g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더덩이병은 대지감자 94.4%가 발병률을 보인 반면 탐나 품종은 75.9%에 불과해 상품률이 60.3%(대지감자는 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탐라감자를 개발한 김성용박사는 탐라감자는 대지감자와 비교할 때 봄 재배보다는 가을재배가 수량이 더 많다고 설명하면서 씹는 느낌이 좋아 식용과 가공용 모두 잘 어울리는 품종이라고 말했다.
- 농업기술원은 더덩이병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탐나감자 종자를 보급하면서 제주 전역으로 품종 보급에 힘쓸 계획이다.

* 출처 : 제주농업기술원

■ 단동 및 연동온실 스마트 기술 적용

- 스마트 온실이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온실을 말한다.
- 스마트 온실의 모체인 스마트팜은 정보통신(인터넷)과 자동화 기술을 융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농사 환경과 상태를 관측제어하고, 정보를 계량화, 객관화 하여 농업생산과 유통·소비·농촌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지능화되고, 고효율화된 시스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을 지향하는 농업형태이다.

- 한국형 스마트 온실은 95% 이상이 비닐 온실이고, 이중 81% 이상이 선진국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단동온실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시설농업 시스템이다.
- 1세대 한국형 스마트 온실에 우선 적용될 기술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농업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작물의 재배환경을 관측할 수 있고, 또 온실내의 기계나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만 하면 멀리 여행을 떠난 곳에서도 쉽게 온실 환경을 볼 수도 있고 제어할 수도 있어 누구나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 단동 및 연동 비닐 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기술은 모든 유형의 온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형 모델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택형 모델로 구분된다.
- 모든 스마트 온실에는 기본형 모델이 설치되며, 농가의 영농여건이나 농업인의 영농목표 및 필요에 따라 선택형 모델을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선택형 모델을 조합해 적용할 수도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시설원예(비닐하우스) 환경제어 ‘스마트 그린하우스’, IT융합 ‘과수재배 관리시스템’, 양돈 사양관리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등 ICT 융복합 모델(13종)을 1,280농가에 보급하였으며, 2017년까지 현대화된 온실 10,500ha의 약 40% 수준인 4,000ha에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스마트 온실지원 대상 농가는 내재해형 규격을 준수하고 전기 동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비닐하우스 등의 온실을 경영하는 시설원에 농업경영체(농가)로서 비닐하우스 5연동(또는 단동 5동)을 기본단위로 하며, 최소 적용 규모는 3연동 또는 단동 3동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단, 육묘·인삼채소·버섯·약용채소 등은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규모 제한을 예외로 하고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한국형 농업 비점오염 평가 모델 개발

- 농촌진흥청, 논이 포함돼 동아시아 지역 등 농업 환경 연구 활용 큰 기대 -

- 한국형 농업 비점오염¹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델이 개발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미국 텍사스 A&M 농업연구소와 함께 APEX²-Paddy 모델을 개발했다.
- 그동안은 농업 환경 평가와 예측에 외국에서 개발한 모델을 이용해 왔으나, 우리나라 농경지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논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이번에 개발한 모델은 담수 조건 등 발과는 다른 물리적 시스템과 논만의 독특한 영농 일정 등을 고려해 개발했다.
- 또한, 이앙 전 썩레질, 이앙, 관개와 배수 조절, 수확 시는 물론, 폭우 또는 관개 시 담수 논에서의 토양 유실과 질소·인의 유출 가중 조건도 포함했다.

- 특히, 양분 유출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영농 관리 방안으로 적절한 관개, 저류 기능 등도 고려했다.
- 이 모델을 활용하면 논으로부터의 양분 유출량과 흐름 등을 하루 단위로 모의할 수 있으며, 논이 포함된 유역의 비점오염 배출량을 평가하고 최적 관리 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 이 모델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www.naas.go.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모델 실행 파일과 모델 구동 방법 및 예시에 대한 설명 파일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모델 실행 파일 안에는 우리나라 56개 기상 관측 지점에 대한 기상 정보와 366개 토양 정보도 포함돼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김민경 농업연구사는 “이번에 개발한 모델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농업 환경 평가 연구에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 비점오염 : 오염원이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되는 것. 자동차, 농경지 시비 등
 2) Agricultural Policy/Environmental eXtender

* 출처 : 농촌진흥청

■ 미강 발효사료로 닭을 건강하게!

- 제조법과 효과 제시... 체중 6% 증가, 사료 요구율 7% 개선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질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닭 사육 농가를 위해 생산비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일 수 있는 미강 발효사료 제조 방법을 제시했다.

- 미강은 쌀 도정 과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로, 농촌진흥청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육계 사료에 미강 발효사료를 1~2% 넣어 먹였다.
- 그 결과, 체중은 6.7% 늘었고, 사료 요구율은 7% 개선됐다. 미강 발효사료 안에 들어 있는 유산균으로 인해 장내 균총이 안정화되면서 닭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 이렇게 직접 만든 미강 발효사료를 이용할 경우, 육계 1만 마리, 1년 5.5회 사육을 기준으로 연간 약 138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 미강을 이용해 발효사료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기가 통하지 않는 통이나 비닐 봉투에 미강 100kg과 시중에서 판매하는 액상 유산균(106마리 이상)을 2~3% 넣고, 물 15~20%를 붓는다.
 - 온도는 35~38℃를 유지하고 약 5~7일간 발효하면 좋은 미강 발효사료가 된다.
- 이렇게 만든 미강 발효사료는 가능하면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생물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서늘한 장소나 냉장창고에 보관하되, 한 달 이내에 사용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문홍길 가금과장은 “이번 연구가 최근 기후변화와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걱정이 많은 국내 양계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미강을 비롯해 다양한 농산부산물 발효사료 제조 방법을 현장 기술 지도와 영농 기술 등을 통해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9. 정책 동향

◆ 농식품부, 2016년 농산물 안전관리계획 확정

□ 2016년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2016년 농산물 등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과학적·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동 계획은 2016. 1. 7.(목) 개최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안전성분과위원회(위원장 정덕화 경상대 석좌교수)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안전성분과위원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라 농수산물 안전성 전문가, 소비자단체 임원, 관련부처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

□ 금년도 농산물 안전관리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 첫째, 최근 3년간(2013~2015년) 생산·유통 단계 안전성 조사에서 2번 이상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를 중점 관리대상 농가로 지정하여 현장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불시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조사대상 농가선정, 현장조사(시료 수거), 교육 등 사후관리 등 안전성 조사를 추진함에 있어 농협 등 농식품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난해 농관원·농협 간 안전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에 로컬푸드 납품 농산물(3천건), 연합마케팅조직의 공동브랜드 농산물(6천건)에 대한 안전성조사는 양 기관이 농가의 재배품목 등 생산정보를 공유하고 시료수거, 부적합품 조치 및 교육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 셋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 시스템(eaT)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지자체·aT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 이는 각급 학교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농산물 등 식재료 구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우수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 eaT 이용학교 : ('10) 119개교 → ('13) 5,283 → ('15) 7,946

** eaT 거래금액 : ('10) 36억원 → ('13) 12,897 → ('15) 20,489

○ 농식품부는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안전성 조사를 조정하여 전체 조사물량을 2015년 계획(89천건)과 비교하여 15%(13.5천건) 정도 축소하였으나,

○ 부적합 발생이 많은 취약 품목과 취약 시기에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안전성 조사의 효율성은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이력이 있는 94개 품목과 다소비 농산물 6개 품목 중점 조사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과잉상태*인 재고쌀을 감축하기 위한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부양곡 재고는 작년 말 190만 톤 수준으로 적정 수준(80만 톤)의 2배 이상임

○ 금번 특별재고관리대책은 지난해 말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 재고 달성을 위해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특별 재고 관리대책을 통해 쌀 재고량을 '18년까지 적정 수준인 80만톤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 2016년 특별재고관리대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쌀 가공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쌀('13년산 10만톤)을 특별 할인하여 1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가공용으로 공급한다.

- 국산쌀 '13년산의 가공용 정상 판매가격은 1,630원/kg이지만 금번 특별 할인공급을 통해 1,000원/kg으로 공급한다. 특히 쌀가루 신규 수요 확대를 위해 10만톤 중 1만톤은 판매가격을 600원/kg으로 인하하여 쌀가루(습식미분) 제조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이러한 할인공급을 통해 과도한 쌀 재고가 감축될 뿐만 아니라 쌀 가공식품업계의 생산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확대(약 76만 명) 등을 고려하여 '16년에는 수급권자에게 공급하는 복지용 쌀의 판매가격을 20% 인하한다.

- 복지용 쌀 지원대상자는 '15년보다 6,000원/20kg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어 실제 구입가격은 27% 인하되는 셈이다.

- 복지용 쌀 구입가격 : ('15) 22,200원/kg → ('16) 16,200원

③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오래된 묵은 쌀 92천톤(12년산)을 2월부터 사료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 현재 사료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판매가격, 공급방식, 사후 관리방안 등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 국산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함으로써 쌀 재고 감축 이외에 사료곡물(옥수수 등)의 수입 대체도 가능해진다.

○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합동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금번 특별 공급되는 재고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16년 특별재고관리대책을 통해 쌀 재고 약 56만톤을 처분하면 쌀 재고관리 비용 약 1,80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설명하였다.

* 쌀 재고 1만톤을 1년간 관리하는 직간접 비용(보관비, 가치 하락분 포함) : 32억원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2016년 과원 규모화 사업 정부지원 확대

○ 농식품부는 규모화·전문화된 과수 전업농 육성을 위해 과원 규모화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81억원 증액한 354억원* 지원

* '15년 273억원 → '16년 354억원(증 30%, 81억원)

- 지가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고려해 과원매매 사업 지원 단가를 3.3㎡당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 한도를 3ha에서 5ha로 늘림

《 과원규모화 사업개요 》

○ 지원내용

- (매매사업)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소유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과수농가에게 매입자금 지원
- (임대차사업)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소유과원을 임차하고자 하는 과수농가에게 임대료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 (과원매매) 50천원/3.3m², 15~30년 상환(연리 2%)
- (과원임대차) 지원 단가는 지역시세 반영, 5~10년 균분상환(무이자)

○ 지원대상자 : 과수 전업농 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업법인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60세 이하로서 과원규모가 0.3ha 이상, 3년 이상 과원을 주된 작목으로 경영하는 농업인
- (2030세대) 39세 이하로서 농촌정착 및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자

※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해당지사에 문(1577-7770)

○ 농식품부는 과원 규모화 사업의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지원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과원 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설 선물 고르기 고민,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해결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설을 앞두고 엄선된 고품질의 우수상품을 모아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 모음집'을 3,500부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품목별 품평회(과일·축산·수산·쌀·식품·전통주)에서 우수한 성적의 브랜드별 농수산식품, 국가인증 친환경 농수산식품, 식품명인 제품, 6차 산업 우수상품, 지자체 추천 상품 등 307개 품목의 농수산식품이 수록되었다.
- 소비자들이 한 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과일·축산·수산·전통주 등 농수산식품 모음,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품, 6차 산업 우수상품 등 품목별, 가격대별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 특히, 2016년 설에는 실속형 선물 주고받기 문화정착을 위하여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10만원 이하의 실속형 상품으로 선물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우리의 고품질 농수산식품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설 명절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 캠페인'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활동도 진행 중이다.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선물 모음집을 전자책으로 볼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 배너를 통해 모음집을 확인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홍보책자 배포를 통해 우리 농수산식품을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5년 1월 20일 제정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년여 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법으로 차산업 육성과 차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차산업의 기술 개발에서 부터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까지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며,

-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재배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 차나무 잎의 채취 시기별 생산 현황, 차의 가공·제조·유통·판매 현황,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차의 수출입 현황, 차산업 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등 차산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내산 차의 품질 향상 유도과 함께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소비자 보호도 기대된다.

* 녹차에 한하여 우전(곡우이전에 채취한 1심 2엽을 사용)·곡우·세작(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1심 3엽을 사용)·중작·대작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 설정

- 한편,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 할 수 있고,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취·창업 확대,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농지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취·창업 확대,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농지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이 1월 21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법령은 지자체기관단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 토론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창업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에게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 그간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을 제외한 일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효율적인 농업영위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농지 취득을 불허해 왔다.
- 둘째, 농업인 소득 증대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면적 기준을 현재 부지의 총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한다.

* (종전)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면적이 허용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공장 전체 총 부지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 제한 → (개선)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만 허용면적을 준수하면 설립 가능

○ 또한, '15. 12. 31일까지만 농업인 등에게 본인 소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셋째, 합리적인 농지 전용 및 농지보전 부담금(이하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사전 납부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 작년 1월 20일,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 이에, 부담금 부과 기준일도 '허가 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변경된다.

□ 한편,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17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다.

○ 그동안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였으나, 개정법령에 따르면 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분할 납부대상 : (개인) 건당 2천만원 이상, (법인단체 등 기타) 4천만원

○ 이밖에도 타 법률에 따른 부담금 면제사항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담금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 농지법령 상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한다.

□ 마지막으로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 이는 농촌 인구감소 등 농업 여건변화에 맞춰 개별법 실효성 제고 및 국토 관리 질서 정립 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리적인 농지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0. 해외 농업정보

◆ 브라질 Agroconsult 대두, 옥수수 생산 하향 전망

- 브라질 농업분석기관 Agroconsult는 2015/16 대두 생산에 대해 지난 10월 전망치인 1억 60만톤에서 9,920만톤으로 하향 전망했다.
- 이는 브라질 최대 생산 지역 Mato Grosso의 기상 문제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지난 해 Mato Grosso 일부 지역이 예상보다 큰 우려가 발생했다고 기관장 Andre Pessoa는 전했다.
- 하지만 브라질 곡물 생산의 전반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Goias나 Mato Grosso do Sul 같은 지역은 지난해 보다 나은 생산량이 전망된다. 지난해 9,600만톤을 능가할 것으로 여전히 기대된다.
- 한편 Agroconsult는 첫 해 옥수수 생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2,850만톤에서 2,790만톤으로 하향 전망했다.
- 두 번째 생산은 5,770만톤으로 이전 전망치인 6,000만톤보다 하회하며 전반적인 생산은 8,560만톤이다.
- 브라질에서는 1월에서 2월 대두 수확 이후 옥수수 파종이 시작된다. 그러나 올해 Mato Grosso지역 파종이 지연되고 있으며, 농가들은 3~4월 건기가 오기 전까지 옥수수 파종 시간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잠비아 옥수수 작황 가뭄으로 7년래 최저

- 잠비아 옥수수 생산이 올해 꽤 오랜 기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약 30%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 잠비아 농민 연합은 곡물 생산 전망에 불규칙한 강우로 지난해 비해 22% 하락한 260만톤을 내다봤으며, 블룸버그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잠비아 주요 주식 곡물 생산이 30%까지 하락할 경우 180만톤이 생산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최근 7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 올해 정확한 수치를 추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곡물 생산에 있어 혹독한 한해 일 것은 분명하다고 농민연합의 대변인 Kingsley Kaswende는 전했다.
-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곡물 생산국인 잠비아는 전국적 정전 사태 및 원자재 가격 폭락 등 1만 여개의 실업자들이 발생되면서 야기된 최대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 잠비아 대통령 에드가 룡구(Edgar Lungu)는 올해 옥수수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공익과 영업, 두 토끼잡기

□ Intermarche, 못생긴 비스킷 브랜드 런칭

-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Intermarche는 지난해 11월부터 Intermarche 146매장에서 운송과정에서 부서진 비스킷들을 모은 브랜드를 출시, 판매하고 있다.
- 2014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내 '못생긴 채소나 과일' 판매 트렌드에 이어 이번에는 가공식품인 비스킷으로 이어진 것이다.
- 업계에 따르면 매년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비스킷이 부서져 버려지고 있다. Intermarche는 음식물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못생긴 비스킷은 같은 제품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정상 제품과 영양소·성분·맛은 같다.
- 프랑스 농업부와 환경부는 2013년부터 매년 10월 16일을 '식품 낭비 방지의 날(Journée nationale de lutte contre le gaspillage alimentaire)'로 선정해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농업 생산처, 식품 도매상, 식품 업계, 대형유통업체, 단체급식시설, 요식업체 등과 협정을 맺어 식품 낭비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 E.Leclerc Templeuve점, 소셜 비즈니스 수프 상품군 런칭

-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E.Leclerc의 프랑스 북쪽 Nord-Pas-de-Calais 지방의 Templeuve점은 산업용 감자업체GAPPI와 인력 알선업체 Randstad와 협업으로 지역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소셜 비즈니스 개념으로 채소 수프 라인인 브랜드 Bon et bien을 지난해 5월 런칭했다.

- 지역 농민들로부터 채소와 과일을 공급받고, 지역 내 장기 실업자 5명을 고용해 채소의 준비, 요리, 소독, 병에 넣는 것 까지 담당한다.
- 이들은 하루에 750ml짜리 제품을 400개, 250ml짜리 상품을 950개 생산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수프는 해당 매장 뿐 아니라 인근 도시의 레스토랑으로 납품된다.

□ 시사점

- 유럽의 대형유통업체들은 식품낭비, 소비조장 등의 오명을 방지하기 위해 다채로운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프랑스 Cop21을 기준으로 식품낭비방지 운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식품 마케팅 시, 농민과 소비자, 환경을 보호한다는 메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한국 농식품도 성분과 맛 등의 기본적인 메세지 중심의 마케팅을 넘어 사회공헌적인 메시지를 강조할 경우, 유럽 내에서도 선진국, 고소득 소비자 층, 예를 들어 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영국·프랑스·독일 중산층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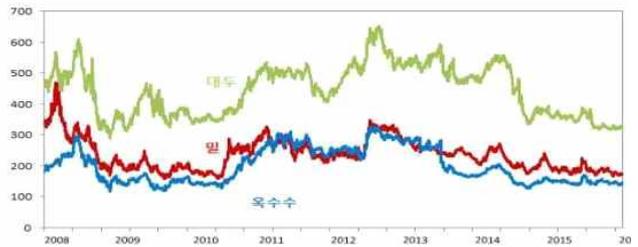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1. 25.(시카고 선물거래소)

밀, 옥수수 가격 강보합세, 대두는 약보합세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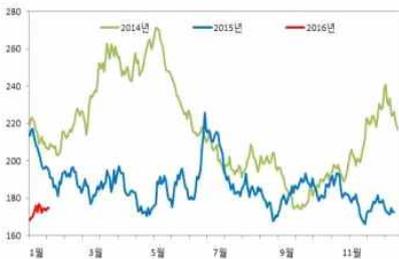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1.22)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2)	2015 평균
밀	174.68	▲0.1%	174	186
옥수수	145.74	▲0.9%	145	148
대두	322.02	▼0.2%	323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3월물, 대두: 3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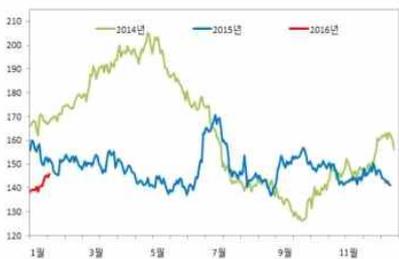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숏커버링세의 영향으로 강보합 마감함. 아울러 유가와 국제 주식시장 선방 또한 밀가격 강보합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풍작과 미국산 수출 수요 약세는 지속적인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USDA 보고에 따르면 1/14 미국 밀은 362,000톤이 판매된 것으로 전해지며, 전망했던 20-40만 톤 수준임.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풍작으로 인한 옥수수 공급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망했던 수출 데이터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며 강보합 마감함. USDA는 미국산 옥수수 수출 판매가 1/14기준 1,157,700톤이 판매되었다고 보고함. 이는 지난 8주간 가장 많은 양이며 전망했던 수출량 보다 상회하는 수준임.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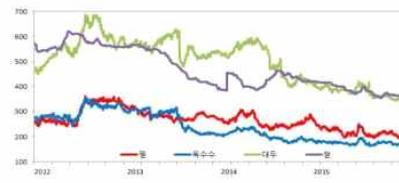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주요 대두 생산지의 우호적인 기후가 전망되어 약보합 마감함. 또한 몇 농가들의 출하를 늘렸으며 기술적 매입세 감소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고 거래소는 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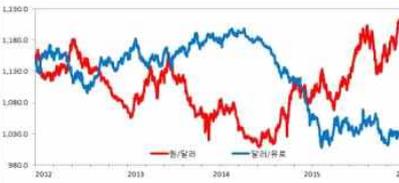
관련동향

- 알칸사부터 북동부 지역 겨울 폭풍전망으로 대부분 무역 거래 차질 예상
- 국제유가는 저가 매수세 유입 지속, 난방유 수요 증가, 주요국 증시 상승, 미 원유 시추기 수 감소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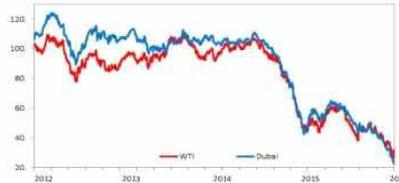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옥수수	171	▼0.6%		달러/유로	1.0871	▼0.2%
	대두	355	▲0.9%	국제유가 (US\$/B)	WTI	32.19	▲9.0%
	쌀	367	-		Dubai	23.88	▲4.6%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3월물), Dubai(현물)

주 2) 기준일은 '16.1.21(수출가격), '16.1.22(환율), '16.1.22(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1.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글로벌 유기농 지도전문가 육성한다

- 농촌진흥청·IFOAM, ‘유기농 지도전문가 훈련 과정’ 실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국제유기농운동연맹(이하 IFOAM)과 함께 유기농 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월 18일부터 10월까지 ‘2016년 유기농 지도전문가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 IFOAM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업 단체로 유기농업 실천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 이번 훈련 과정은 농촌진흥청과 IFOAM 사이의 국제협력사업 협약에 따른 것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6개월에 걸쳐 진행한다. 훈련 내용은 국제 유기농 인증 체제, 농업인과 의사소통 기술, 농업인장터 조직화 기술 등에 대한 것이다.
-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홍승길 농업연구사는 “이번 훈련이 국제적인 유기농지도자를 전문적으로 육성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유기농산물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친환경 농업육성기금 신청하세요

- 전남도, 유기농 확산과 가공·유통판로 확보 등 위해 70억 1% 저리 융자 -
- 전라남도가 유기농 확산과 가공·유통판로 확보 등 친환경 농업 내실화를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원을 1%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 친환경 농업육성기금 신청 자격은 전남 거주 1년 이상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업 관련법인 대표 등 생산자단체 또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친환경농산물을 대량 매입하는 유통업체 등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에 기여한 단체다.
- 시설 및 운영자금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전라남도는 서류(현지) 심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께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눠 지원되며 담보 능력에 따라 개인은 1억원, 단체는 5억원, 유통업체 임차료는 10억원까지 지원된다.
-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보유한 시설을 확충할 경우 지원된다.

- 운영자금은 시설자금 이외의 원료 구입수매자금,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포장디자인 개발 비용, 판매장 임차료 등과 같이 소득 증대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에 지원된다.
-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친환경육성기금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생산농가와 가공·유통·수출 등 친환경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천과 가공·유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발전 육성을 위해 지난 2005년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 육성기금 조례를 제정해 올해까지 총 400억원의 친환경 농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자금 부족 해결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순천시, 고소득 유망 과수 육성을 위한 『플럼코트』 식재 지원

- 순천시는 올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고소득 유망 과수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 본 사업은 플럼코트 등 신품종 핵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천시 관내에서 재배희망면적 0.1ha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묘목과 퇴비구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과종으로는 플럼코트·체리·자두·살구 품목이 해당되고, 노후화된 매실을 대체하여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 플럼코트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내육성 품종으로 자두와 살구를 교배하여 맛과 향이 뛰어난 최신 품종이다. 전국적으로도 20여ha 정도가 재배되고 있다.
- 이에 순천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00ha의 면적을 확보하여 전국 제일의 플럼코트 주산지로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1월 29일까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749-8764)로 하면 된다.

* 출처 : 순천시농업기술센터



플럼코트 ‘하모니’



복숭아 ‘미홍’



주간

전남농업정보

70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